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 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게 축하를 드림으로써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아니발 카바쿠 쉐바
2015년 8월 17일 리스본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 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에리오 피아르방민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게 축하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각하게 계속 행복하길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인민민주공화국 대통령
박사 몰라투 테쇼메
2015년 8월 19일 아디스 아바바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 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을 맞으며 에리트레아가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싣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평화를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게 다시 한번 중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합니다.
에리트레아가 대통령
이싸야스 아페워르키
2015년 9월 2일 아스마라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은 각 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협조관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관계를 정치, 경제분야에 걸쳐 심화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서 당신과

협조하게 반대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존경하는 각하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싣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통상발견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쥬
2015년 9월 3일 울란바타르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 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게서 건강하고 행복하싣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게 복귀와 번영이 있기를 바라면서 중심으로부리의 축하와 최대의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2015년이 라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40돐이 되는 해라는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언급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협조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발전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이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아데즈
2015년 9월 4일 방콕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 하

각하
나는 민족적정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벨라루스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유익한 협조가 성과적으로 확대되며 전통적인 쌍무친선관계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각하
나는 당신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림으로써 당신께서 건강하싣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평화와 복귀를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2015년 9월 9일 민스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 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게와 각하를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게와 그리고 귀국과 귀국인민에게 언제나 안정과 번영이 있을것을 바랍니다.

나는 각하게서 강점을 팔장내고 안전과 평화 보장된 동부구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과 합법적인 투쟁에 관심을 돌리시고 확고한 지지와 면담성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게서 건강하고 행복하싣것과 아울러 우리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
2015년 9월 9일 라말라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있다.
-신용지구 혁명정적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위대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진행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별, 월별, 분기별로 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적경로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하신 자욱과 별들의 업적이 깃들여있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주고있다.
이와 함께 일꾼들이 들끓는 포전에 나가 신선작업하면서 화산식정지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은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확고히 깊이있게 인식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얼마전 농정의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꾼은 작업의 열람에 우리 당이 걸어온 력사를 개괄적으로 해설한 다음 강성국가건설을 전두에서 지휘하는 강령에 대한 철학의 현명한 명도아래 세상을 논해오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 이 부름은 우리 당이 자기의 장한 아들딸들인 청년들의 값높은 위훈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어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한층더 재부여 강건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청춘시절을 보람있게 바치는것처럼 아름다운 생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면 좋은 날이나 시련의 나날이나 오직 당밖에 모르며 당을 따라 끝까지 한걸음 걸아올수 있을것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며 끝없는 행복과 밝은 미래를 담보해주는 당의 품을 떠나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걸잡았기때문이다. 이들의 빛을 삶의 거울로 삼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족탄약사,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선군시대 청년들의 인생관

이 강성조건을 떠날때가 아니라 청년들의 신념의 맹세이다. 백두산선군정년발전선 건설자들의 위훈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당의 소조를 피뎌는 심장마다 새기고 애국충정의 결사전을 줄기차게 벌려온 백두산선군정년발전선소안공의 판관적대 상인 1호발전선 연세공리드타임을 빛나게 결속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자랑스런 성과는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는 선군시대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더해 주고있다. 백두산악과도 같은 억센 신념과 배양, 떠오르는 불길과 같고 솟구치는 노도와 같은 열정과 용감성, 젊음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참된 길이 있다.
고상한 미덕과 미풍으로 사회와 집단에 청춘들의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청춘들이 있는 곳에 정과 사랑이 없고 향기가 없다면 어떤 사회는 꽃이 없고 화단과 같이 생기를 잃게 된다. 청춘의 아름다운 향기가 사회에 딱 차면해야 사회의 문태가 살아나고 사회와 집단이 화목하게 된다.
20살 꽃나이에 《처녀어머니》로 불려오는 청춘화동무들의 아름다운 소생을 놓고도 우리 시대 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어머니라 불려오는 처녀어머니는 누구도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망, 미배사망을 받들어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는 그의 미덕은 남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기자신의 안일과 향락, 부와광택한 생활을 누리는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의 청년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데 삶의 가치와 영예가 있다것이 바로 《처녀어머니》만이 아닌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닌 인생관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모두가 고상한 미풍의 소유자들로 자라나고있다. 전쟁로병들을 반대하고 친철육의 정으로 보살피며 투쟁을 도울 때나 외전 산골과 섬마을로 탄원하여 학생소년들의 품을 꽃피우면서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어주고있는 청춘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웅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것을 청년의 보람으로 여기고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인격과 미덕이 있다.
청년들은 당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며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람있게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는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 이것은 선군조선의 청춘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사상정신적특징이다. 우리 혁명의 전세대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고 좋은 날이나 시련의 나날이나 오직 당밖에 모르며 당을 따라 끝까지 한걸음 걸아올수 있을것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며 끝없는 행복과 밝은 미래를 담보해주는 당의 품을 떠나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걸잡았기때문이다. 이들의 빛을 삶의 거울로 삼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족탄약사,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이 강성조건을 떠날때가 아니라 청년들의 신념의 맹세이다. 백두산선군정년발전선 건설자들의 위훈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당의 소조를 피뎌는 심장마다 새기고 애국충정의 결사전을 줄기차게 벌려온 백두산선군정년발전선소안공의 판관적대 상인 1호발전선 연세공리드타임을 빛나게 결속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자랑스런 성과는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는 선군시대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더해 주고있다. 백두산악과도 같은 억센 신념과 배양, 떠오르는 불길과 같고 솟구치는 노도와 같은 열정과 용감성, 젊음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참된 길이 있다.
고상한 미덕과 미풍으로 사회와 집단에 청춘들의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청춘들이 있는 곳에 정과 사랑이 없고 향기가 없다면 어떤 사회는 꽃이 없고 화단과 같이 생기를 잃게 된다. 청춘의 아름다운 향기가 사회에 딱 차면해야 사회의 문태가 살아나고 사회와 집단이 화목하게 된다.
20살 꽃나이에 《처녀어머니》로 불려오는 청춘화동무들의 아름다운 소생을 놓고도 우리 시대 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어머니라 불려오는 처녀어머니는 누구도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망, 미배사망을 받들어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는 그의 미덕은 남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기자신의 안일과 향락, 부와광택한 생활을 누리는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의 청년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데 삶의 가치와 영예가 있다것이 바로 《처녀어머니》만이 아닌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닌 인생관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모두가 고상한 미풍의 소유자들로 자라나고있다. 전쟁로병들을 반대하고 친철육의 정으로 보살피며 투쟁을 도울 때나 외전 산골과 섬마을로 탄원하여 학생소년들의 품을 꽃피우면서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어주고있는 청춘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웅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것을 청년의 보람으로 여기고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인격과 미덕이 있다.
청년들은 당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며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람있게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당창건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던 나날에

하게 되었다.
1943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혁명정세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우리 혁명에 아주 유리하게 진행되고있었다.
1943년초에 이르러 소련군대는 쓰촨령그라드부근에서 벌어진 격전에서 최신허기로 장비한 파쑈이철허란드의 30개 기계화정예사단을 격파함으로써 쓰촨전쟁승리의 결정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한편 일제는 중국전선에서 해여날 수 없는 곤경에 빠져들어가고있었으며 태평양전쟁에서도 세력균형을 완전히 잃고 패전을 거듭하고있었다.
이러한 소식들을 보고받으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격언하는 정세발전의 추이를 보아 일제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조국해방의 대사업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고 말씀하신다.
조선전쟁에 대처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구상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렇듯 전국적규모에서 당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으니 나로서는 흥분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대오는 2월 7일 밤에 무산군 릉강리 야매굴이 도강지점으로 열여덟은 두만강을 건너오며 다음날 오후에 연사군 연사읍 사지봉의 수림속에 있는

비밀련락소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뜻밖에도 릉춘추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달려와 인사하며 드리는 그를 뜨겁게 포옹해주며 《간백산에 있던... 동무가 언제 여기에 왔소?》라고 물으셨었다.
림춘추동지는 백두산일영에서 활동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시었다는것과 회의장소는 사지봉전쪽에 있는 우적굴에 정하였다는것 그리고 전국적이며여섯가지 회의에 참가할 대표들이 예비검결장소에 도착하였다는것을 보고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간 동무들이 수고하였다고 하시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여기에 앉아 이야기나 하라고 하시며 대오에 후식명령을 내리신 후 양지바른 골짜기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복합의 2월일지라 숲속에는 눈이 쌓여있었고 날씨는 여간만 차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용털의두를 입으신채 양지쪽바위우에 걸터앉으시더니 사지봉은 참으로 잊을수 없는 고장입니다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1939년 여름에 여기에 와서

많은 조건에서 회의준비도 하고 서울과 함남지구에서 온 동무들도 만나보셨다고 하시면서 회의날짜를 9월로 정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휘성원들에게도 대표들을 만나보셨다는것 좋게도 말씀하시었다.
그러하여 지휘성원들은 전국도처에서 찾아가는 각 지방의 대표들을 만나게 되었다.
김일동지는 해주, 무산, 신의주지방에서 온 대표들을, 릉춘추동지는 신산, 신라지구에서 온 대표들을 만났다.
나도 그들과 함께 여러 지방의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당시 국내인민들의 동향에서 주목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호모의 정이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민심이 백두산으로 쏠리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원산대표는 어느 학교생생이 아이들에게 백두산수령님이야기를 해준것이 《과》가 되어 굉장하였는데 학생들이 경황에서 가서 우리 선생을 내놓으라고 버티기투쟁을 했다고 하였고 신라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장군님께서 손꼽아올라온 죽지범으로 일본놈들을 소탕하는데 이제 멀지 않아 조선이 해방되고 장군님을 조선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심점으로 우리라 부르는데 우리 인민의 지향은 그 무엇도 막을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대표들은 또한 전국도처에서 당조직들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있었다는것과 당창건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는것을 이구동성으로 제기하였다.
대표들의 의견은 나로 하여금 역시 당창건이 선포될 결정적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예감을 더 확고히 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당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그려보는 나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었다.
그러나 나의 흥분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도 나의 예상을 뒤집어놓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당회정형을 보고받으시면서 자신께서 도 서울, 함남 등 여러 지역의 동무들을 만나보셨는데 적지 않은 동무들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된 조건에서 당창건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급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애국의 마음 차넘치는 푸른 숲을 따라

평양-향산관광도로를 따라 달린 우리의 취재차는 향산읍을 지나 운산군의 경계점에 이르렀다.

높고낮은 산마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있어 빈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키가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는가 하면 4~5년생 정도 되는 나무들도 기운차게 자라고있어 여러해전부터 산림조성사업을 잘하고있는 운산군의 실태가 첫눈에도 잘 안겨오는 듯 하였다.

푸른 숲 설레이는 이색로운 산경치도 그치지않고 가로수들이 줄지어 늘어선 군소재지를 향할 도로 역시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경계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공로 묘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군소재지를 가가이하면 우리는 콘크리트기둥에 해가림막까지 비롯하게 띄운 아이세베장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앞과보니 운산현정영소 양묘장이 자리 잡고있는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아이세베장 등을 꾸러놓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나무모양상을 윤택하게 내밀고있었다. 양묘장에서 우리는 군산림경영소의 일꾼을 만나 그와 함께 군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 하였다.

일꾼은 우리를 음모로가 아니라 온길 길을 되돌아 담상지로 안내하였다. 그것은 나이 70을 가까이하는 오목까지 30년동안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는 물론

운 산 군 을 찾 아 서

나무모기우기를 중도반란없이 없이 묵묵히 해오겠다는 정시중정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현재에 도착한 우리는 야산쪽으로 길을 옮겨 올해에 써볼만한 창성이갈나무모판과 지난해에 자라는 창성이갈나무들이 있는 수십정점도의 양묘장에 이르르게 되었다.

답사에서 특별히 이갈나무가 많은 이유를 밝히기 설명해주는 것만 같지 않다. 창성이갈나무모판이 있다. 일꾼의 말대로 일년내내 양묘장장 산에서 살다가 심어 한다는 정시중정부는 우리 가 갔을 때에도 양묘장을타리를 손질하고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커만 가는 애국의 마음을 갈무리 닦아내놓는 듯이 보였다. 누가 보지않고, 알아주지않고 산림조성사업에 온념을 바친 그는 당의 크나큰 영웅과 사랑속에 내로보장을 받았지만 2012년에 진행된 국토관리총동원운동형성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정시중정부는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산림부추진명령을 결사관철하는것은 제대관리관이든 어찌날의 산림감독원이었던저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의 남은 생을 푸른 숲의 밑거름으로 묻어드립니다.》

이런 고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비껴고 답사리의 푸른 숲은 끝없이 펼쳐졌다. 일꾼은 군산림조성과 더불어 꽃피는 지방은 이른바 아니라고 하면서 화려로 가보고자 하였다. 그는 군에 푸르데 설레이는 숲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많으라 하는 마음속생각을 안고 우리는 군소재지를 돌며 돌아왔다. 손색없이 포장된 도로, 도로양옆에 줄지어 늘어선 여러가지 나무들, 아담하게 꾸러진 아파트들과 공공건물들만 보아도 운산군 일꾼들과 인민들의 주어진 일본새를 엿볼수 있었으며 역시 산림조성사업에서 서나가고있는 군이 다르다는 느낌은 더욱 커졌다.

한편 군에서는 러관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에 대한 개건 및 보수공사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두적으로 벌어지고있었다.

음을 벗어난 우리의 취재차는 얼마간 달려 취리의 산림구역에 이르러 있었다. 이곳에서는 심은지 얼마 안되는 창성이갈나무와 소나무, 잣나무들이 어장방이 높기 비록 나무작을 잘 자라고있는것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일꾼은 이렇게 군에서 산림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 산림조성과 양묘장에서의 성과가 대만하다고 하면서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이곳 산림감독원들이 이관하는 수백명의 산에는 이갈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나무들과 도라지와 같은 약초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산리용군사범을 짜고들어 학생, 교, 교수의 발까지도 심어서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는 자랑도 펼쳐놓았다.

봄날나무기를 적기적수,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경사도에 따라 나무사이간격과 필사간격을 과학기술적으로 잘 타산하여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식경제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초지식을 전수하기 위한것으로가 아니라 학생이 생리고 살모이는 지식을 더 배우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려면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 학생들이 새롭고 참신하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을 실용화한다는것은 교육내용을 현실이 요구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교육내용의 실용화는 우선 생활과 실천의 요구로부터 제기된다. 또한 교육내용을 실용화해야 하는것은 현실이 요구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내용이 시대와 더불어 부단히 변화발전하기때문이다.

교육내용을 실용화하기 위하여서는 현존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시대가 요구하고 현실에 참모였던 여러가지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교육내용을 실용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하나의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각각의 지식들과 관련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사이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종합가능한 내용들을 찾아내야 하

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 줄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을 종합화한다는것은 기초적인 교육내용과 전공관련교육내용, 같은 과학분야 또는 서로 다른 과학분야의 학과목내용들을 걸부시키거나 융합시킨다는것을 말한다.

교육내용을 현대화한다는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끊임없이 보충하고 갱신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교육내용을 현대화해야 하는것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이 끊임없이 발현되고있는 현실은 교육내용을 보다 더 종합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교육내용의 종합화방식에는 대체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로 기초적인 교육내용과 전공관련교육내용을 걸부시키는 방식이다. 둘째로, 같은 과학범역의 학과목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학과목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셋째로, 서로 다른 과학범역의 학과목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학과목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교육내용을 종합화하는 목적은 교육내용을 과학기술발전의 현 추세에 따라세워 학생들에게 보다 참모있는 지식과 능력을 소수시키는데도, 실용화 종합화하는 방식이다.

교육내용을 종합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하나의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각각의 지식들과 관련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사이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종합가능한 내용들을 찾아내야 하

1700여건의 전시품들에 비끼 과학기술열풍

제16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파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의학과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에발달에서 나서서 모든 문제를 원천히 풀어내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아 제16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파전시회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3대혁명전선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이렇듯 많은 사람이들속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전시품을 놓고는 전시회가 오고고되었다. 그리고그것이 전국의 보건부문 일꾼들과 교원, 연구자들이 10월의 대추경전에 드리는 자랑스런 선물을 마련하는 심정으로의거하여서도 평소실현에서 실지 얻을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훌륭하게 전시되고 있다.

우수하게 평가된 발명제안들(2)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삼돐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전시품을 놓고는 전시회가 오고고되었다. 그리고그것이 전국의 보건부문 일꾼들과 교원, 연구자들이 10월의 대추경전에 드리는 자랑스런 선물을 마련하는 심정으로의거하여서도 평소실현에서 실지 얻을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훌륭하게 전시되고 있다.

행인공대외국물주》는 지난 시기수업에 의존하던 수세체물들물저의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이곳 연구진단의 고심어린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고려약을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심장으로 새긴 선교구역립병원진료소 의사 장미란동무가 이번엔 내놓은 분은 《옛가지 비루수침봉봉에 대한 유행항비루수침봉봉의 기초 및 임상연구》도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리용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국의 시, 군에서 조사분석한 온혈, 약수, 치료용감람, 신진수(생물), 기구, 풍정진료사원에 대한 광학화학적평가와 그 합리적리용법, 방법, 자연치료를이용하는데서 비롯하여 실지 얻을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훌륭하게 전시되고 있다.

압 록 작 근 에 서

누 구 나 좋 아 하 는 량 강 도 의 농 마 국 수

해산에는 농마국수와 감자음식을 봉사하는 압록강이 있다. 이 고장에서 오래 산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20년전에 압록강 농마국수에 대한 신문이 그려져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좋아졌다고 한다.

해산시민들은 더 말 할것 없고 답사, 관찰 등으로 해산에 오는 타지방사람들도 의례히 압록강의 농마국수를 맛보곤 한다. 지난해 대동단위의 감자농사성과에 토대하여 농마가후가 충분히 보장되고 또 봉사자들의 로리수준이 높으니 압록강의 인기는 더욱 올라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평양은 평민과 대동강을애국이 보듬김치, 량강도는 농마국수가 유명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사적내용도 가슴깊이 새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농마국수도 맛보시며 압록강은 해산에서 농마국수를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고, 농마국수는 향과 맛에 있어 좋고, 담자자들은 시원한 농마국수를 한그릇씩 먹으면 정신이 번쩍 나고 활력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압록강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절제위인들과 그 숭고한 뜻을 받들고 농마국수를 더 맛있는 만들어 봉사하기 위해 아담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대한 천행음동무와 종업원들은 제비처럼 기운차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적극적인 탐구와 수확을 통해 부단히 해결해나갔다.

이렇게 애써 노력하는 과정에 시원하고 산뜻한 맛을 가진 압록강의 농마국수가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시당책임일꾼이 찾아와 들려준 이야기가 이 곳 봉사자들의 가슴을 더욱 울렸다. 음식문화도 자랑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시킬데 대해 가르쳐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오존층보호와 국제적 관심

오는 9월 16일은 《국제오존층보호의 날》이다. 유엔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헌약이 채택된지 30년이 되는 올해 이날의 주제를 《오존층복합을 위한 공동의 길에서 30년:오존과 지의의 변화의 관속에서 우리모두가 있다.》로 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환경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하였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방사되는 빛가운데서 생명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자외선의 97~99%를 차단하는 러파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자외선에 의한 오존층의 오존량이 1%만 감소되어도 자외선의 복사량은 훨씬 증가하며 그로 인한 피부암의 발병률은 5~7%, 백내장환자는 0.2~0.6% 증가한다고 한다. 사람들의 생활과 지구의 생태환경에 유익한 오존층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오존파괴물질의 대량방출로 하여 심히 파괴되

었다. 국제적으로 프레온가스를 비롯한 오존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으며 다양한 활동들도 진행되고있다. 오존파괴물질들을 대응하는 물질의 개발도, 오존파괴물질들의 회수와 재활용, 분해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지난 30년간의 국제적인 협력과 여러가지 활동들에 의하여 오존파괴물질의 98%를 제거하거나 대응물질로 전환시킬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 이르러서는 오존층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1986년-1999년에 프레온가스를 비롯한 오존파괴물질들의 생산과 소비가 87% 줄어들었으며 1994년에 최후수치를 기록하였던 대기중의 염소화물도 가 속 줄어들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을 활발히 진행해오고있다.

옛 모습을 자랑하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

《두나이의긴진주》 부다페스트 두나이의 긴진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시었다. 《두나이의 긴진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시었다. 《두나이의 긴진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시었다. 《두나이의 긴진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시었다. 《두나이의 긴진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시었다.》

경치아름다운 올레도시의 세이이 파르강으로 둘러싸인 에스바나의 올레도시에는 옛날 유명한 화가 그레코가 크게 배후되었던 아름다운 경치가 지금도 남아있다. 바위위에 건설된 이 도시에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각이한 형식의 수많은 옛 건축물들이 있다. 특히 3세기에 걸쳐 건설된 대성당은 에스바나의 고지크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그레코와 그레코의 근대화 작품들과 나르세스 도메의 《포탄스 베네네》 등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들어있는 성당은 아직도 미술박물관을 현상시킨다. 조 함미

교육자의 본분을 지켜

만경대구역 갈림길소화교 교장 서현화동무는 우리 당의 후대후사, 교육진사상을 실현으로 만들어가는 열정적이며 참된 교육자이다.

언제나 교원들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꾀고있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학교의 개선보수와 교육설비, 교구비품들을 헌만히 갖추기 위해 교원들과 학생들을 힘써 구걸을 불 배척치 않고나가는 완강한 실천력은 교육사업에 대한 그의 높은 책임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학교와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며 뜨거운 진정으로 교직원들을 위해주고 그들의 열의를 북돋우는데는 그의 모습에서 모두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곤 한다. 본사기자

교육자의 본분을 지켜

만경대구역 갈림길소화교 교장 서현화동무는 우리 당의 후대후사, 교육진사상을 실현으로 만들어가는 열정적이며 참된 교육자이다.

언제나 교원들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꾀고있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학교의 개선보수와 교육설비, 교구비품들을 헌만히 갖추기 위해 교원들과 학생들을 힘써 구걸을 불 배척치 않고나가는 완강한 실천력은 교육사업에 대한 그의 높은 책임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학교와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며 뜨거운 진정으로 교직원들을 위해주고 그들의 열의를 북돋우는데는 그의 모습에서 모두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곤 한다. 본사기자



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김주연 영웅김주초등학교에서-

